

순천시, '청렴 TF팀' 청렴시책 보고회 개최

순천시장을 단장으로 반부패·청렴 시책 협의 시책 실효성 높이고 전 공직자 청렴 행정 협력

순천시는 19일 청렴 운영 체계인 '청렴 TF팀'을 구성하고 부서 청렴시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노관규 순천시장을 단장으로 △조직·교육 △계약 및 관리 △보조금지원 △재세정 △인허가 관련분야 14개 부서의 과장, 팀장 30여 명이 참여해 부서별 청렴 추진 시책 보고 및 부패취약분야 개선 방안 등을 협의했다.

시는 앞으로 청렴시책 공유 및 추진실적 보고회를 개최하여, 부서별 청렴 시책 추진과 직원 의견 수렴을 통해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모든 공직자가 청렴한 행정을 하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2023년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아 행정 신뢰도가 향상되고 있음을 입증했고, 더 높은 도약을 위해 다양하고 참신한 시책들을 준비하고 있다.

시는 올해 △청렴서포터즈 추진 △청렴콘서트 개최 △찾아가는 청렴스쿨학교 운영 △청렴 슬로건 선정 △민원 만족도조사 등 소통과 참여를 통한 청렴한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시민이 행복한 지속가능



한 도시는 행정에 대한 높은 신뢰에서 나온다"며,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도시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청렴 행정을 강조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3월엔 광양에서 꽃길만 걷자

광양시가 전국적 호풍 속에 대단원의 막을 내린 제23회 광양매화축제에 이어 광양벚꽃문화제, 광양천년동백축제 등 꽃 퍼레이드가 계속된다고 밝혔다.

올해 제9회를 맞는 '광양벚꽃문화제'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금호동 백운쇼핑센터 조각공원 일원에서 '다시 봄, 벚꽃에 물들다'를 슬로건으로 개최된다.

22일 오후 2시부터 장기자랑, 모듬북, 광양시립국악단의 공연이 이어지고 오후 6시 개회식이 진행된다. 23일에는 청소년 페스티벌, 합기도 시범, 벚꽃가요제 예선 등이 열린다.

24일에는 전국밸리댄스대회, 광양시 심포니 오케스트라에 이어 벚꽃가요제 본선과 초대 가수 공연 등이 준비돼 있다.

올해로 7회를 맞는 '광양천년동백축제'는 오는 23일과 24일 양일간 옥룡사 동백나무숲 일원에서 '천년의 동백꽃 소풍가는 날'을 주제로 개최된다.

23일 오전 11시 30분 개회식 전 옥룡도산품물단의 길놀이, 광양시립합창단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오후 2시에는 동백가요제가 열린 예정이다.

또한, 오후 1시부터는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백일장 및 생생대회가 열리고 어린이 동반 가족에게는 사신 인화 및 액자 제작 이벤트 등이 펼쳐진다.

그 밖에 추억의 보물찾기, 동백오일 체험, 화장품·비누·팔찌 만들기, 진저커피 식음 체험, 선각국사 도선 참선길 걷기 등 다채로운 체험이 마련돼 있다.

김성수 관광과장은 "광양매화축제에 이어 광양벚꽃문화제, 광양천년동백축제 등 향긋한 꽃의 향연이 계속된다"면서 "3월에는 봄의 도시 광양에서 꽃길만 걸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광양에는 벚꽃이 필 즈음 제맛을 느낄 수 있는 벚꽃, 삼진강제첩 등 봄철 먹거리가 풍부한 만큼 오감을 만족하는 광양미식여행을 적극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광양=기동취재본부



20일 전남 여수시 베네치아 호텔에서 2024 세계 기후도시 포럼이 열린 가운데 남해안 남중권 COP33 유치 협력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사진=여수시 제공)

여수에서 '2024 세계 기후도시 포럼' 개막

'에너지 전환 및 자연기반 해법 활용' 주제

'2024 세계 기후도시 포럼'이 20일 전남 여수시 베네치아 호텔 컨벤션 센터에서 막이 올랐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 지방정부협의회(이클레이)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21일까지 '에너지 전환 및 자연기반 해법 활용'을 주제로 탄소중립도시 달성을 위한 도시전략과 해법을 논의한다.

독일,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6개국 10여 명의 국외 초청 연사와 각국의 이클레이 회원 및 GCoM(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 협약) 참여 지방정부, (사)탄소중립실천연대, 연구기관 등 70여 명이 참석한다.

포럼 주요 내용은 ▲에너지 전환(태양광, 해

상풍력)에 대한 각국의 사례 공유 ▲자연기반 해법 관련 도시 사례 발표 ▲참가자 워크숍을 통한 에너지 전환 및 자연기반해법 관련 그룹 논의와 정책 아이디어 도출 등이다.

이 행사는 지난해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여수시와 이클레이 간 국제행사 협력 논의로 끌어낸 결과물로, 시는 이를 통해 2050 탄소 중립 실현 및 COP33 유치 홍보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수시와 전남도는 이에 따라 본행사에 앞서 남해안 남중권 전라남도, 경상남도도 12개 시·군이 참여하는 담당자 협력 회의를 열고 COP33 남해안 남중권 공동유치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고 COP33 성공유치 의지를 다졌다.

여수=기동취재본부

보성군 코로나19 백신 제작 발간

코로나19 대응 3년 8개월간 기록, '위기에서 빛난 보성의 노력'

보성군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 대한 정보 제공과 향후 신종 감염병 대응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보성군 코로나19 백신'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백서에는 2020년 1월 코로나19 신종감염병 발생 초기부터 2023년 8월까지 1,320일간 군민과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한 주요 대응 과정이 총 4개 부문 15개 분야별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다.

주된 내용으로는 '팬데믹에 맞선 1,320일의 여정', '한마음으로 안전을 지킨 위대한 보성', '같이 힘으로 지킨 일상의 가치', '코로나19 최전선에서 빛난 아름다운 시간들' 등으로 정부 방역 지침에 따른 보성군 대응 방안이 체계적으로 기록됐다.

특히, 공적 마스크 공급부족을 해소하고 자 △마스크 의병단의 마스크 제작, △전군민 마스크 배부 등 당시 군민과 함께 극복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집중돌파 1위, △전국 최초 백신접종 인센티브 지급, △전군민 무료 독감 백신접종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선제적 모범사례로 꼽힌 보성군 대응 정책이 상세하게 기술돼 있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대응했던 보성군, 유관기관, 민간인 등의 생생한 수기도 담겨, 실제 종사자들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다.

보성군은 관내 유관 기관에 백서를 배부하고, 보성군 누리집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보성=김택순기자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신종 감염병은 우리 사회를 더 위협적이고 더 큰 파괴력을 가지고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신종 감염병에 대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라며, "코로나19 백신이 향후 감염병 발생 시 소중한 자료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김철우 군수는 "보성군 코로나19 백신이 추후 유사 감염병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3년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깨끗한 전남 만들기 함께해요

사용금지 품목

1회용 종이컵

1회용 빨대·젓는 막대

1회용 우산 비닐

1회용 쇼핑백

전라남도